

明清時期 女性文學 資料 譯註와 解題(2)

— 명대 여성문학가들의 비평 자료를 중심으로

崔琇景*

<목 차>

1. 서론
2. 烈女와 '나' 사이, 그 고통과 갈등 - 方維儀 자매
(1) 解題
(2) 譯註
3. 규방 속에서 해방을 꿈꾸다 - 陸柳子
(1) 解題
(2) 譯註
4. 當代와 소통하기 - 沈宜修
(1) 解題
(2) 譯註
5. 길 위의 기녀 - 王微
(1) 解題
(2) 譯註
6. 결론

1. 서론

필자는 <明清時期 女性文學 資料 譯註와 解題(1)>를 통해 명대 남성 문인들의 여성문학론과 비평론에 관련된 자료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계획한 대로 남성 문인들의 눈을 거치지 않는 明代의 여성 작가나 비평가들의 문학 관련 자료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남성들과는 달리 明代 여성들이 직접 쓴 문학론이나 비평문

* 誠信女大 韓國女性研究所 研究教授

은 상당히 드문 편이다. 청대 이후로는 여성 작가들이 자신의 시문집에 自序 혹은 다른 여성문학가들의 글을 序跋文의 형태로 신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지만, 그 이전까지는 여성 시문집이나 總集의 시작과 끝은 대부분 남성 문인들—주로 남편 등의 가족이나 당시 유명 문인—이 쓴 추천사 형식의 序跋文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여성의 음성은 문학적 가공을 거친 詩詞의 형태로만 제시되었고 그녀들의 육성은 남성들의 그림자 뒤로 조심스럽게 가려져 있었다. 때문에 시 작품을 제외하고 명대 여성들이 직접 쓴 비평문이나 자료를 찾아 선정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많지 않은 한정된 자료들 중에서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작가들의 다양성이었다. 명대 후기 (16세기 중반 - 17세기 중반)는 중국 최초로 글 쓰는 여성이 개별적인 예외가 아닌 집단으로 등장한 시기라고 할 만하다. 많은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宋代까지의 여성 작가들은 매우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개인으로 존재해 왔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宋代까지의 여성들은 모두 자각적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거나 글을 쓸 여건이 항상 더 열악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재능을 갖춘, 글을 잘 쓰는 ‘한 개인’이었을 뿐 ‘여성 작가’로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孫康宜는 명청 시기의 여성 작가들과 그 이전 시기 작가들간의 차이점으로 1. 자신의 작품집을 지녔고, 2. 출판을 통해 서적의 유통에 참여했고, 3. 여성들의 문학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점을 들었다.¹⁾ 즉 이들은 더 이상 글 잘 쓰는 재주 있는 ‘개인’이 아니라 ‘여성 문인 집단’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들은 출판이라는 매개로 독서를 통한 간접 교류와 각종 詩社를 통한 직접 교류 모두를 함으로써 고립된 개인이 아닌 ‘여성 문인’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여성 작가 개개인을 들여다본다면 이 시기에 이미 이들 집단 사이에서도 분열과 충돌을 통한 개별성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우선 명말의 여성 문학가 집단은 사대부가의 여성들과 기녀 집단으로 나뉘게 된다.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그들의 부친, 남편, 아들의 지위에 따라 당시 중국 여성들 가운데

1) Kang-i Sun Chang, <Introduction>, Kang-i Sun Chang and Haun Saussy, eds., *Woman Writers of traditional China: An Anthology of poetry and Criticism*,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9.

가장 큰 특권을 누렸던 이들이다. 상당수의 가정에서 딸들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자 교육과 문학 교육을 시켰고 이는 이들 여성 개인에게도 상당한 자산이 된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 시문집을 출판하였고 이는 가족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들에게 부여된 공식적인 婦德 이데올로기와 內外의 분리라는 물리적인 구속은 이들의 세계를 규방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여성들이 집 밖의 세상을 구경했고 이들이 지녔던 인적 네트워크도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의무와 실제의 자유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한 거리 사이에서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자신의 자리를 정한다. 열녀로 호칭되었던 方維儀 자매와 과격적이고 급진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몸소 실현하였던 陸柳子の 예는 바로 명 말기의 사대부 여성들이 문학을 통해 선택할 수 있었던 넓은 폭과 스펙트럼을 잘 보여준다. 이들 외에 고전이 아닌 동시대 여성들의 시를 수집하며 이들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沈宜修의 자료도 함께 수록 하였다.

이 시기는 名妓들의 전성기이기도 했다. 수없이 많은 기녀들이 秦淮를 중심으로 한 유곽에서 문인 남성들의 문학적, 인간적 파트너가 되었다. 이들은 남성들에게 아내들이 채워줄 수 없는 지적, 정서적 위안을 제공했으며 일부 명기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지적 수준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육성은 사대부가의 아내들 보다 더욱 찾기가 힘들다. 이들의 시는 남성들의 심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상당히 많으며 이들의 시문집 역시 남성들(주로 당시의 명사들)의 비평으로 채워져 있다. 이들에게 덧씌워진 이미지는 대부분 문인 남성들에 의해 낭만적으로 윤색된 것이기 때문에 기녀들이 직접 쓴 자료를 발굴, 해석하는 작업은 더욱 값어치가 있다. 明末의 가장 유명한 기녀 중 하나인 王微의 시집 自序는 이런 드문 자료 중의 하나이다.

2. 烈女와 ‘나’ 사이, 그 고통과 갈등 - 方維儀 자매

(1) 解題

方維儀(1585-1668)²⁾와 方孟式(? - 1639)자매는 당시 桐城 지방 여성 문학의 문학적 맹주라 할만하다. 특히 방유의는 명대의 사대부 여성 시인을 대표하는 작가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들은 문학적 명성에 못지 않게 이들이 보여준 국가와 남편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 ‘方氏 三節’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방씨삼절’이란 이들 외에 이들의 여동생인 維則을 포함한 것이다. 이들은 代理卿을 지낸 方大鎮의 딸들이었다. 이들이 ‘三節’이라 불리게 된 것은 이들의 기구한 개인적 운명 때문이다. 방유의는 17세에 姚孫榮에게 시집을 가지만 남편은 이미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불과 몇 달 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만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딸을 낳지만 이 딸 역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 10대의 나이에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은 방유의는 8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절하며 문학과 학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다. 그녀의 여동생인 維則 역시 비슷하게 16세에 과부가 되어 84세까지 수절한다. 한편 언니인 방맹식(字如耀)은 다소 다른 이유로 ‘三節’에 포함된다. 그녀는 山東의 布政인 張秉文의 아내였다. 錢謙益의 《列朝詩集》의 표현에 의하면 “그녀는 《시경》과 《서경》에 뜻을 깊이 두고 부덕을 갖춘” 여성으로 자손을 보기 위해 남편에게 첩을 들여주기도 하였다. 순정 庚辰년에 濟南을 지키던 남편이 전사하자 그녀는 시비에게 위급한 순간이 오면 자신을 연못으로 밀어 넣으라고 이른다. 성이 함락되자 그녀는 시비를 재촉하여 자살하였다고 한다.³⁾ 재미있는 것은 남편에 대한 개인적 충성을 실현한 두 자매(방유의, 方維則)와

2) 방유의의 본명은 方仲賢이고 ‘유의’는 字라고 한다. 언니인 방맹식이 본명으로 알려진 데 반해 그녀는 ‘유의’가 본명처럼 더 널리 알려져 있는데 《宮閨氏籍藝文考略》에 의하면 그 당시부터 이러한 호칭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었던 듯 하다. (“今時本相沿誤稱字，亦緣集端不以名書，其誤與陸卿子正同也。”胡文楷，《歷代婦女著作考》，上海古籍出版社，1985，81쪽)

3) “志篤詩書，備有婦德。年二十餘無子，爲秉文置妾，舉三丈夫子。崇禎庚辰，舍之守濟南，死于城上。

국가에 대한 충성을 실현한 방맹식의 경우를 동일하게 읽어낸 당시 사람들의 讀法이다. 《靜志居詩話》에서는 “방씨 삼절이란 하나는 맹식으로 남편과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하나는 유의로 열일곱에 과부가 되어 84세까지 살았다. 하나는 維則으로 16세에 과부가 되었지만 역시 84세까지 수를 누렸다. 白圭에 아무런 흠이 없듯이 고통스러운 절개가 가히 아름다우니 여러 글 쓰는 여성들에게 모범이 될 만하다.”⁴⁾라 평가하였다. 개인의 충절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은 유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유법이기도 하지만,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은 신하에게 있어서의 임금과 동일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유에서도 性別的 의미가 발견된다. 여성에 있어서 貞操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도리가 아니라 황제, 국가에 대한 충성의 메타포로 중첩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남편을 위해 수절한 두 여동생과 국가를 위해 순국한 언니의 경우는 행위 자체는 다르지만 해석하는 이들에게는 결국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방유의는 84세까지 장수하였고 당시 그 지역 여성 문단의 맹주답게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대부분은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시문집인 《淸芬閣集》(8권)을 비롯하여 비평집인 《宮闈詩史》, 《宮闈文史》, 《宮闈詩評》, 그리고 여계서인 《閨範》등을 남겼다. 그녀는 당시 여성들이 근체시에 주력하던 것과 달리 고체시에도 뛰어났고 기교보다는 질박하고 우아한 풍격을 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⁵⁾ 그녀는 개인 생활에서도 엄숙한 여학자이자 스승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올케인 吳令儀와 더불어 여성에게 부과된 가정적 의무인 女工 대신 학문에 종사하며 그 조카를 교육시켰다고 한다.⁶⁾ 언니인 방맹식은 《紉蘭閣集》(8권)과 《紉蘭閣詩集》(14권)을 남겼다. 방맹식은 남편과 더불어 국가를 위해 殉節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생전에는 남편의 임지를 따라 많은 곳을 여행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다른 지방관의 부인들이

如耀戒侍婢曰：事急則推我入池水中。城陷，臨池痛哭。趨呼侍婢曰：推我，推我！遂墮池水而死。(錢謙益，《列朝詩集小傳》〈閨集〉‘香奩’上，上海古籍出版社，1983，735쪽)

4) “方氏三節，一爲孟式字如耀，……同其夫殉節……一爲維儀，十七而寡，壽八十有四，一爲維則，十六而寡，壽亦八十有四。白圭無玷，苦節可貞，足以昭諸管形矣。”(朱彝尊，《靜志居詩話》권23，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8，726쪽)

5) “《神釋堂雜語》云：近世閨秀多工近體小詩耳，能爲古詩者什不二三，能爲古文詞者百不二三也，夫人獨兼能之，古文詞即未極鎔鑄，要之質素儷雅，不爲其靡矣。”(胡文楷，앞의 책，81쪽)

6) “守志于淸芬閣，與嬋婦吳令儀以文史代織紉，教其姪以智，儼如人師”(錢謙益，앞의 책，736쪽)

때마다 음식에 장식품을 장만하면서 즐기는데 비해 그녀의 즐거움이란 남편 동료의 부인들인 鄭氏와 吳氏와 시를 주고받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⁷⁾ 이것이 실제 그녀의 삶이었는지, 열녀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한 수사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현존하는 기록으로는 그녀 역시 동생과 마찬가지로 부덕과 근면을 강조하는 전통적 여성성을 구현하는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그녀의 문학적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방맹식은 당시의 유명한 여성시인 徐媛에 대한 악평으로도 유명하다. 서원은 사대부 출신이기는 하지만 방맹식 자매와는 극단적으로 상이한 미학 세계를 추구했고 여성 藝人들, 歌妓, 기녀, 심지어는 侍婢에까지도 가리지 않고 문학적 교류를 하였다. 서원의 시 역시 여성의 육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탐미주의와 관능적 시각을 보여 주며 여성들의 전통적 시 세계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다. 그러한 서원에 대해 방맹식은 “그저 우연히 아는 글자 몇 자로 되는데로 작품을 만든다.”며 “소주 사람들은 명성을 쫓을 뿐 공부는 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퍼붓는다.⁸⁾ Dorothy Ko는 이러한 평가를 가리켜 ‘악의적’이라고까지 했는데⁹⁾, 이는 물론 각 지역의 경쟁 심리에서 나온 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성의 도덕적인 음성이 무엇이나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나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같은 계층적 배경을 지닌 사대부가의 아내들일지라도,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과 학식을 지니고 글쓰기를 통해 자기표현을 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소수의 여성 집단이라는 동일성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여성 문인이라는 좁은 공동체 내부에서도 공존과 더불어 이러한 긴장과 분열이 함께 존재했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언니와 동생의 시문집에 각각 서문의 형태로 등장하는 방유의와 방맹식의 육성은, 그러나 사대부가의 엄숙한 여성 시인들이 추구했던 글쓰기가 이들 내면적 고통의 표현이었음을 아프게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삶을 견기는 했지만 공통적으로 남성 중심 가부장제 하에서 지체 높은 여성들에게 부과된 의무에 버거

7) 전경익, 앞의 책, 735쪽.

8) 桐城方夫人評之曰：“偶爾識字，堆積龜鯀，信手成篇，天下原無才人，遂從而稱之，始知吳人好名而無學，不獨男子然也”(전경익, 앞의 책, 752쪽)

9) Dorothy Ko, *Teachers of the Inner Chambers-Women and Culture in Seventeenth-Century China*, Stanford Univ. Press, 1994.

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혈육의 고통에 질질한 동정과 연민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연민은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있어 문학은 개인으로서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에 더욱 절박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방맹식은 평생을 곤궁과 고독 속에서 살아야 했던 동생의 고통을, 방유의는 한 집안의 주부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에 시달려야 했던 언니의 삶을 한 여성의 눈으로, 대단히 주관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방맹식이 동생의 시문집인 《청분각집》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동생 방유의가 문학, 글씨, 그림 등에 얼마나 재능이 뛰어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신의 재주를 하찮게 여기고 才를 德의 하위 개념으로 치부하였다는 것이다. 문학적, 예술적 재주가 여성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대부가의 여성들에게 德(특히 婦德)이란 그 무엇과도 치환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임을 잘 보여준다. 이는 물론 여성 문인들이 자신들의 글을 평가할 때 흔히 사용하는 레토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방유의가 언니 방맹식을 묘사한 《인관각시집》의 서문에서는 다소 다른 느낌을 감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방맹식에 대한 연민과 함께 그녀 내면의 갈등도 함께 포착할 수 있다. 언니의 지성과 재능이 대단히 뛰어났고 명성을 누리기도 했지만 그 명성이 사적인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방맹식의 고독한 삶을 동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생활도 그다지 순탄치만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유의는 처음에는 언니의 지성과 문학적 재능, 부덕이 아무런 모순 없이 조화되고 있음을 극구 강조하고 있으나 뒤로 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겪은 삶의 고통을 떠올리면서 그러한 지성과 덕의 작용에 대해서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여성의 부덕이라는 견고한 규범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언니의 삶은 선인들의 가르침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삶 속에서는 이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婦德과 지적 재능 모두가 헛된 이름일 뿐이라는 자조어린 탄식은, 이 글을 쓴 방유의 역시 삶 속에서 빠져린 고통을 체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의 삶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가부장적 인간관계와 의

무에 대한 자조와 회의가 섞여 있다고 해석하기에 충분한 글이다. 이 두편의 서문은 명망 높은 사대부가의 여성들에게 글쓰기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가정 내에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그녀들이 어떻게 표현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 譯註

方維儀의 《清芬閣集》序文 - 方孟式

玄晏先生의 한 마디 말에도 천금의 값을 매기는 이런 일은 名公鉅卿들의 일이다. 우리 무리들은 깊은 규중에서 어색하게 웃음 지으며 하루 종일 지척의 거리를 맴돌며 산다. (그러니) 어찌 벼슬이나 글을 쓰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하니, 우리 자매들이 글을 써서 주고받고 한 것이 있기는 했지만 셀 수 있을 정도였다. 내 기억에 우리 자매가 어렸을 때 온 집안이 어가를 모시고 天雄으로 갔다. 연회에서 (군주를) 모시고 있는데 눈이 내려서 (이에 관한)시를 읊었다. (동생은) 빼어나게 여성의 풍모를 보여주었다. 세월은 쉽게 흘러가고 각기 비상하였다가 도중에 추락하여 모두 극도로 斷腸의 탄식을 하게 되었다. 나는 다행히 부귀한 집안에 시집가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지만 동생 姚는 이미 (과부가 되어) 懷淸臺를 애달파하며 수절할 것을 맹세하게 되었다. (그녀의) 생활은 고달팠으나 다행히 문장과 역사에 관해 어려운 글자를 물어가며 그럭저럭 위안을 삼았다. 내 여동생은 높은 절조와 깨끗한 품성을 지녔고 거기에 지혜와 영민함까지 갖추었지만 재주를 자랑하지 않았다. 늘 하늘을 우러러 말하기를 “여자에게는 규범이 없는 법이니 내게 무슨 규범이 있겠는가?” 이별과 슬픔, 원통함을 노래하는 시들은 써보고는 대부분 태워서 버렸다. 기쁨 화려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만들어 내면 다투어서 장엄함을 흉내낸 즉 밀어놓고 (작품을)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으며 이를 末技로 치부하였다. 그녀의 학식을 보면 여자 博士祭酒보다 못하지 않았다. 고금을 훑어

내리며 꾸준히 글을 썼다. 한 번은 부채 손잡이를 보여주는데, 衛夫人이 쓴 것처럼 뛰어난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모두들 보물처럼 떠받들었지만 (동생은) 늘 이를 꺼리며 별 중요치 않은 재주로 여겼다. 아아, 내 동생! 나태하고 멍청함과는 원래 부터 거리가 멀었다. 나는 병이 있어 유유자적 편히 지내며 마음에 품은 뜻이 별로 없고 (남편을)따라 豫章, 복건, 광둥 지방의 뛰어난 경치를 유람하였다. 또한 뛰어난 여성들과 사귀며 (책을) 인정받아 보잘 것 없는 신세를 즐겁게 하였다. (나는) 내 몸의 처지만 보살피느라 (내 동생처럼) 고귀한 품덕을 지니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훌륭한 부인을 뛰어난 여성들 중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오십여년을 궁색하고 시름에 차서 살았고 부질없이 비천함을 애달파하며 뛰어난 목소리를 내고 글을 썼다. 어찌 차마 잠시인들 잊으리요. 그래서 최근의 작품을 실어 책으로 엮었으니 밤낮으로 읽어보시기 바란다. 명망있는 귀족 가문, 여성들의 글을 대략 읽어 본 자들은 마땅히 뛰어난 애장품의 하나로 선택하시어 湘妃들의 눈물 흔적을 간직하시길 바랄 뿐이로다.

皇甫玄晏¹⁰), 隻語千金, 名公鉅卿事也¹¹). 我輩嚙兒¹²)深閨, 終日行不離咫尺, 何足當弁簡之贊¹³). 雖然, 吾姊弟間子墨倡和, 可得而更僕數¹⁴)也. 憶吾姊弟稚穉時, 從家侍御遊天雄¹⁵), 及燕侍¹⁶)雪而咏, 輒津津嚮林下風¹⁷). 歲月流易, 分飛中落, 備極

10) 皇甫玄晏은 魏晉 시기의 작가이자 의학가이기도 한 皇甫謐(215-282)를 지칭한다. 그의 호가 玄晏先生이다. 여러차례 조정의 부름을 받고도 칭병하며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으며 左思도 <三都賦>도 그에게 서문을 부탁하는 등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의학서 외에 <高士傳>, <烈女傳>등을 썼다.

11) 名公鉅(巨)卿: 명망이 있는 귀족이나 권세가를 지칭한다.

12) 嚙兒: 어색한 웃음을 짓다. 억지로 웃는다는 뜻.

13) 弁簡之贊: 弁은 고대 귀족들이 예복이나 관복에 사용하던 모자를 말하고 簡은 편지나 문서를 지칭한다. 贊은 원래 예물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확장되어 '손에 쥐다', '장악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즉 弁簡之贊란 벼슬이나 글쓰는 직책, 임무를 비유한다고 봐야 한다.

14) 更僕數: 계산하다, 세다는 의미이다.

15) 侍御는 군왕을 모신다는 의미이지만 귀한 분을 수레로 모신다는 의미도 있다. 天雄이 지명인 것은 확실해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다.

16) 及燕을 앞의 '天雄'과 연결되는 것으로 하고 '천웅' 및 '燕(하북성)지방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燕侍를 "(군주를) 연회에서 모시고"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侍'를 해석할 방법이 없다.

17) 林下風은 林下風氣라고도 한다. 여성들의 우아하고 飄逸한 풍채를 찬양할 때 쓰는 말이다. <世

鬪陽之歎. 余幸託副笄¹⁸車塵¹⁹, 女弟姚則已哀清臺²⁰而號柏汎²¹矣. 生涯辛苦, 賴有文史問難字, 差足慰藉²². 乃吾女弟玉節冰壺²³, 加慧益敏, 而不炫其才. 居恒仰天曰‘女子無儀, 吾何儀哉?’²⁴ 離憂怨痛之詞, 草成多焚棄之, 偶一繪施金相²⁵, 競炙莊嚴²⁶, 卽沈閣²⁷弗錄, 鄙爲末技. 窺其學不減女博士祭酒²⁸, 下上古今, 亶亶²⁹成章. 偶示扇頭, 衛楷永眞³⁰, 咸捧如寶, 常諱之爲餘藝. 嗟乎阿妹! 亶體調聽³¹之意,

說新語>><賢媛>의 “王夫人神清散郎, 故有林下風氣.”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 18) 副笄: 부귀한 집안 여성들의 머리장식을 지칭한다.
- 19) 車塵: 수레가 일으키는 먼지를 말하는데 돌아다니는 고달픔을 비유하기도 한다.
- 20) 清臺란 懷清臺를 지칭한다. 懷清은 秦始皇시대의 정결 과부의 이름인데 여성의 정결을 비유하기도 한다. 회청대는 진시황이 그녀를 기리기 위해 세운 누대이다.
- 21) ‘柏汎’은 《詩經》<鄘風>의 <柏舟>의 ‘두둥실 잣나무 배(汎彼柏舟)’라는 첫 구절에서 가져온 듯하다. 毛詩序에 의하면 <백주>는 共姜이 스스로 맹세하며 지은 시라 한다. 공강의 남편이자 衛의 세자인 共伯이 일찍 죽자 공강은 수질할 것을 맹세한다. 그의 부모가 강제로 시집보내려 하자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나중에는 ‘柏舟’라는 단어 자체가 남편이 죽고 나서 재가하지 않겠다고 뜻을 세운다는 의미로 쓰였다. ‘號柏汎’이란 공강처럼 죽은 남편에게 신의를 지킬 것을 다짐했다는 의미로 파악할 듯하다.
- 22) ‘差’는 여기서는 약간(略微)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듯 하다. 宋 張實의 <流紅記>의 ‘떨어진 일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잎보다 약간 더 컸다(有一脫葉, 差大於他葉)’이 이런 용례로 사용된 경우이다. 慰藉은 “위로하다”, “위안하다”는 의미이다.
- 23) 玉節冰壺: 玉節은 천자의 사신들이 지니던 符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고상한 절조를 형용한다. 冰壺는 얼음이 담긴 옥주전자라는 뜻으로 깨끗하고 고결한 인품을 비유한다.
- 24) ‘儀’가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儀는 儀表, 예절, 법규나 규범, 儀器, 표준, 준칙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앞뒤 문맥으로 보아 儀가 예절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여기서의 儀는 글을 쓰는데 있어서의 확고한 규범이나 원칙 등을 비유한 말인 듯 보인다. 즉 이 구절은 자신의 문학적 행위가 무의미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듯하다.
- 25) 金相: 금을 입힌 불상을 말하기도 하며 아름다운 형식을 비유하기도 한다.
- 26) 莊嚴: 사탑을 짓고 불상을 장식하는 것을 일컬으며 문장의 전아함을 비유하기도 한다.
- 27) 沈閣: 沈閣이라고도 하며 내버려 두다, 방치하다는 의미이다.
- 28) 祭酒란 원래 옛날에 술을 빚어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漢魏 이래로의 관직명을 비유하여 일컫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漢代에 博士祭酒라는 관직명이 있었는데 隋唐 이후로는 國子監 祭酒라 개칭하여 국자감의 주관하는 관직을 일컫었다. 여기서는 대단히 학식이 높은 자를 비유한 것으로 쓰였다.
- 29) 亶亶: 근면하여 지칠 줄 모르는 모양 혹은 시간이 흐르는 모양을 형용한다.
- 30) 衛楷永眞에서 楷와 眞은 모두 글씨체를 말한다. 楷는 楷書體이고 眞도 해서에 속하는 한자 글씨체의 하나이다. 衛와 永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짐작컨대 衛는 고대 최고의 명필가로 꼽히는 王羲之(303-361)에게 글씨를 가르쳤다는 東眞의 衛夫人을 의미하고 永은 위부인이 전수했다는 運筆法인 ‘永字八法’을 의미하는 듯하다. 즉 ‘위부인이 쓴 것 같은 뛰어난 글씨’를 형용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31) 亶體調聽란 원래 ‘떨어지다’라는 의미이지만 惰와 통하여 나태하다, 게으르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黜은 내쫓다, 줄다, 없애지다, 버리다 등의 의미로 亶體調聽란 몸을 게으르게 하고 총명함

固已遠矣. 余抱病適志³²⁾, 小有積什³³⁾, 附遊豫章³⁴⁾ 閩粵山水奇勝, 復納交³⁵⁾ 名媛, 印可³⁶⁾ 以娛朋³⁷⁾. 顧當吾身, 而令懷³⁸⁾ 藟³⁸⁾ 啜茶³⁹⁾ 嚙藥³⁹⁾ 之碩人⁴⁰⁾, 不顯於名媛 方幅⁴¹⁾ 哉? 半百窮愁, 空悲腐草⁴²⁾, 發洪鐘而擣雷鼓⁴³⁾, 何忍須臾忘之. 於是, 載其 近編, 用覲寤寐, 其有名公鉅卿, 流覽⁴⁴⁾ 彤管者, 當必擇琳瑯之一枝⁴⁵⁾, 存湘閩之斑淚

- 을 없애는 것, 즉 몸과 마음을 게으르고 아둔하게 만드는 것이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 32) 適志: 편안하게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 <莊子> <齊物論>에는 “昔者莊周夢爲胡蝶, 栩栩然胡蝶也, 自喻適志與.”라는 구절이 있는데 郭象은 여기서의 ‘適志’를 “스스로 즐겁고 만족하다(自快得意)”라 해석하였다.
- 33) 積什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문맥으로 보아 “마음속에 생각이 많이 들어있다, 쌓이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 34) 豫章이란 원래 나무의 한 종류를 말하는 것이지만 옛 郡의 이름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의 江西 南昌을 말한다.
- 35) 納交란 結交를 의미한다.
- 36) 印可: 인증 허가한다는 의미이다. 원래 불교에서 불경을 인증하고 허가한다는 의미로 印可라 하였고 禪宗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同意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宋 劉昌詩의 「蘆浦筆記」 서문에는 “願獨學寡識, 安敢以爲是, 將求印可于先覺之士”라 하였는데 여기서도 (글을) 보여주고 인정받는다는 의미도 사용되고 있다.
- 37) 朋儻은 영락하다, 조락하다는 의미이다. 문맥상으로 보아 여기서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말로 봐야 할 듯 하다.
- 38) 藟³⁸⁾ 啜³⁸⁾ 藥³⁸⁾: 직역하면 구슬을 품다. 즉 높은 품성과 재능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 39) 啜茶³⁹⁾ 嚙藥³⁹⁾:啜과 嚙은 씹다, 먹다는 의미이고 茶는 맛이 쓴 채소 혹은 풀, 藥은 황벽나무를 의미하는데 맛이 대단히 쓰다고 한다. 즉 啜茶³⁹⁾ 嚙藥³⁹⁾란 거칠고 보잘 것 없는 음식을 먹으며 겸소한 생활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 40) 碩人: 원래 <詩經>에 나오는 단어이다. <衛風>의 ‘碩人’ 시에서는 “碩人其碩, 衣錦褵衣”라는 구절에 대해 鄭玄은 “碩은 크다는 뜻이다. 莊姜의 풍채가 크고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다(碩, 大也, 言莊姜儀表長麗俊好, 碩碩然)”이라고 해석하였다. <邶風>의 ‘簡兮’의 “碩人俟俟, 公庭萬舞”라는 구절에 대해 毛傳에서 “석인이란 큰 덕을 말한다(碩人, 大德也).”라 풀이하였다. 즉 미인이거나 덕을 지닌 인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宋代에는 여성의 封號로도 사용되었고 이후 여성에 대한 존칭으로 폭넓게 쓰였다.
- 41) 方幅: 모양이 반듯하고 올바르다는 뜻에서 비롯되어 사람의 인품이 단정하고 바르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 42) 腐草는 풀이라는 뜻의 腐草는 비천하고 미약함을 비유할 때도 사용된다. 唐 歐陽詹의 <元日陪早朝>라는 시에는 “강변의 썩은 풀 지금 얼마나 영광이런가. 그도 恒星과 함께 북극성을 에워싸게 되었으니(江草腐草今何幸, 亦與恒星拱北辰).”이 그런 경우이다.
- 43) 洪鐘은 큰 종, 혹은 크고 맑은 종소리를 지칭한다. 雷鼓는 원래 제사에 쓰는 북을 말했지만 여기서는 소리가 우뢰같은 큰 북을 의미한다. 劉義慶의 <世說新語> <語言>에는 “만약 큰 종이나 북도 두드려보지 않으면 그 소리를 알 수 없다(若不一叩洪鐘, 伐雷鼓, 則不識其音響也).”라는 구절이 있는데 홍종이나 뒤흔치는 모두 소리를 의미한다. 즉 여기서의 洪鐘과 雷鼓는 훌륭한 사람이 말하는 음성, 혹은 뛰어난 문학 작품을 비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
- 44) 流覽: ‘두루 보다’ 혹은 ‘대략 보다’라는 의미이다.
- 45) 琳瑯은 아름다운 옥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어 훌륭한 사물을 가리키는데 많이 쓰인다. 특히 뛰어난 글이나 책을 비유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云爾⁴⁶⁾.

方孟式의 <紉蘭覺詩集>서문 — 方維儀

<인관각시집>의 시들을 읽어보면 깊은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도다. 나의 언니는 자신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평생 동안 시련을 겪어야 했도다. 그래서 그녀는 발분하여 시와 노래를 지은 것이로다. 아아. 언니의 본성은 원래부터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웠고 공손하고 정숙하면서도 영민하고 배우기 좋아했다. 그녀는 9세에 글을 지었고 사도온과 같은 뛰어난 시적 재능을 지녔다. 선친께서는 대단히 사랑하시어 항상 보실 때마다 탄식하시기를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았을 것을, 애석하게도 딸이로구나.” 하셨다.

시집갈 때가 되자 方伯 鍾陽公에게 시집가서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며 부인의 도리를 다하여 두 집안의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관직에 임명된 남편을 따라 멀리 여행을 가게 되어 북경, 북진, 호북, 광둥, (호남성의) 淸泉, (강서성의) 潯陽을 돌아다녔다. 그러는 가운데 깨끗한 관리가 되도록 남편을 도왔고 함께 시를 짓고 읊으며 매우 화목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노래하였다. 이십 여세에 아들 하나를 낳았으나 딸들은 모두 일찍 죽고 말았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첩을 들었다. 남편 가문의 대가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노력하면서 아들을 당당한 공자로 키워서 훗날의 복을 기약하였다. 집안을 검소하게 꾸렸고 부지런하게 술과 음식을 준비하였다. 첩과 하녀들을 자신의 자식들인 양 다루어 七教와 시경, 예기 등을 가르쳤다. 그래서 방백공은 그 내조에 많이 도움을 받았었다.

슬프게도 나의 언니는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하고 (남편에) 이어서 스스로 이별을 고하게 되었다. 비록 재능의 명성이 세상에 자자하고 규묵의 인자함에 비교되었지만 (그녀는) 부질없이 이름만의 명예를 차지했을 뿐 그 간 고통을 겪어야 했다. 아래위로 (그녀에게) 책임만을 넘겨주었을 뿐 누가 가엾게 여겨주었는가. 다른 사

46) 湘閨之斑淚란 湘妃竹에 관한 이야기를 말한다. 舜의 아내인 娥皇과 女英은 순이 죽자 눈물을 흘려 대나무에 흔적을 남기고 湘水에 투신하여 湘水神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湘 고을의 눈물 자국이란 남편을 여윈 여인의 심정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인 듯 보인다.

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나 언니는 오로지 네 가지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겸손한 태도와 아름다운 소리로 남편을 모셨다. 머리는 반백이 되고 고독과 싸우며 근심걱정에 병까지 앓았다. 그녀는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었고 청풍명월에 기대어 자신의 시름을 달랬다. 나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로써 그녀를 애달파하고 경모하지만, 그녀의 근심이 얼마나 깊었는지에 대해서는 감히 다 쓸 수가 없도다.

讀初蘭閣之詩者, 不勝傷悲之至也. 余伯姊夫人, 苦其心志, 生平摧折, 故發憤於詩歌者也. 嗟乎! 姊氏之性, 素秉忠孝, 恭順幽貞, 敏而好學. 九歲能文, 有詠雪才⁴⁷⁾. 先君廷尉⁴⁸⁾撫愛篤甚, 常日之而嘆曰, 有此子爲快, 惜是女. 及笄, 歸方伯鍾陽公, 事舅姑夫子, 以盡婦道, 而兩門尊親皆稱之. 隨官遠遊, 經涉燕, 閩, 楚, 粵, 清泉, 潯陽, 間輔佐清政, 以唱和吟咏得諧敬愛之重. 年至廿餘生一子, 女皆不育, 爲夫置妾, 欲蕃其胤⁴⁹⁾, 遂得振振⁵⁰⁾公子, 以綏⁵¹⁾後福. 治家節儉, 中饋⁵²⁾勤勞, 撫訓妾媵如己出, 以七誡⁵³⁾詩禮而教之, 於是方伯公多賴其內助焉. 哀吾伯姊時遭不遇, 一脈自悼⁵⁴⁾, 雖有才名著世, 樛木⁵⁵⁾仁慈, 空叨冠佩之榮⁵⁶⁾, 歷踣艱辛, 上下加責, 有孰憐者. 在他人

47) 詠雪이란 謝道韞의 고사에서 나왔다. 劉義慶의 《世說新語》에 보면 눈이 오자 사도운이 이를 가리켜 “夫若柳絮因風起”라 읊었다고 한다. 이후 여성이 시적 재능이 있음을 가리키는 전고로 사용된다.

48) 廷尉: 방유의 자매의 부친인 大理卿 方大鎮을 일컫는다.

49) 胤은 자손, 후예를 지칭한다.

50) 振振은 여기서서는 위용(威容)이 있는 모양을 지칭한다.

51) 綏는 원래 수레 손잡이의 줄에서 유래한 어휘이다. 편안하다, 평안하게 하다, 퇴각하다, 고하다, 멈추게 하다, 묶어놓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서서는 훗날의 복을 ‘머무르게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52) 中饋는 여성들이 부엌에서 하는 집안일을 지칭한다.

53) 七誡는 七教를 말하는 듯 보인다. 이는 父子, 兄弟, 夫婦, 君臣, 長幼, 朋友간의 윤리규범을 말한다. 《禮記》, <王制>에 “明七教以興民德”이라는 구절이 있다.

54) 一脈自悼: 一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서는 ‘一線’, ‘一縷’와 같은 뜻으로, 서로 연이어 관련되는 사물을 지칭할 때 사용된 듯 보인다. 즉 이는 앞서서 남편이 전사한 비극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自悼는 ‘스스로 애도하다’, 즉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지칭한 것이다.

55) 樛木은 《詩經》<周南>중의 ‘樛木중 “남쪽에 굽어 늘어진 나무, 쫄렁쫄렁이 휘휘 휘감았네(南有樛木, 葛藟纒之)”라는 구절에서 나왔다. 이 시는 흔히 后妃가 질투하지 않고 아래의 여러 첩들을 사랑하여 돌봐주기 때문에 여러 첩들이 후비의 덕을 칭송한 것이라고 해설한다. 때문에 이 구절은 “규목 시에 나오는 후비와 같은 덕과 인자함으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不堪其憂, 伯姊惟躬行四教⁵⁷⁾, 遜讓怡聲⁵⁸⁾, 以奉夫子; 斑白蕭條⁵⁹⁾, 愁苦多病, 第鼓琴咏詩, 籍清風明月以自解. 余爲同胞傷痛之, 敬慕之, 蓋有不敢盡敘其患之深也.(胡文楷, 《歷代婦女著作考》, 82-84쪽)

3. 규방 속에서 해방을 꿈꾸다 - 陸卿子

(1) 解題

의무와 고통에 짓눌려 살았던 방유의 자매와는 극단의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대부 출신의 여성 작가가 바로 陸卿子⁶⁰⁾이다. 姑蘇(지금의 蘇州) 출신이고 생졸년은 확실치 않으나 남편의 생졸년으로 판단해 보면 대략 1550,60년대에 태어나 1620,30년대까지 생존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녀의 부친인 陸師鐸(1517-1580)은 잠시 禮部의 비서로 근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삶을 아마추어 화가로 유유자적하게 보낸다. 그는 소주의 유명한 화가인 文徵明(1470-1559)의 제자이자 협력자이기도 했다. 육경자는 15세때 宋 왕가의 후손인 趙宦光(1559-1625)와 결혼한다. 조환광은 스스로를 은둔자로 상상했지만 당시 강남의 유명한 문사들과 친분을 쌓기도 했다. 그는 또한 많은 출판 사업에도 관여했는데 여기에는 그 자신과 아내의 작품도 포함되었다. 육경자의 두 시집 《考槃集

56) 冠佩: 원래는 고대 관리의 冠과 장식을 지칭하는데 여성들이 사용하는 모자와 장식품을 가리키는 데도 쓰인다. 冠佩之榮이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명예를 비유하는 듯 보인다.

57) 四教란 여기서는 四德, 즉 婦德, 婦言, 婦容, 婦功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晉 干寶의 《晉紀總論》에는 “후비는 사교를 몸소 실천하였다(而其后妃, 躬行四教)”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물론 四德을 말한다.

58) 遜讓은 遜讓이라고도 하는데 겸양하다, 겸손하다와 같은 뜻이다. 怡聲은 부드러운 소리를 말하는데 《禮記》〈內則〉의 “及所, 下氣怡聲, 問衣襪寒.”에서 나왔다.

59) 蕭條란 적막하고 외로움을 말한다. 때로는 ‘부족하다’ ‘쇠퇴하다’ ‘드문드문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60) 본명은 陸服常이고 卿子는 字이다. 그러나 방유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명보다는 육경자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과 《玄芝集》은 모두 남편이 돈을 대어 출판한 것이라 한다.

이 둘은 ‘글 쓰는 아내와 조력자 남편’의 모범적인 케이스라 할 만하다. 그들은 세속적功名심에 휩쓸리지 않는 유유자적하고 초탈한 삶을 꿈꾸었으며 문학적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동료이기도 했다. 혼인 후 이들 부부는 寒山에 들어가 은거 생활을 하였다. 조환광의 문학적 능력과 재능은 아내보다 훨씬 뒤떨어지면서 책 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쓴다고 비판받기도 했지만⁶¹⁾ 육경자가 결혼 후 사대부가 여성이라면 당연히 젊어져야 할 가족적 의무에서 벗어나 거리낌 없이 문학적 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조환광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조환광은 孔子를 모방하여 아내는 15세에 시에 뜻을 두었다고 하였고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던 자신을 성심껏 간호한 것에도 고마움을 표하는 등 문학과 인생의 파트너로서 아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⁶²⁾

육경자의 이름은 다른 문인들의 비평이나 근대 이후의 문학사에서도 흔히 徐媛의 이름과 함께 거론된다. 이는 이 두 사람이 시를 주고 받은 절친한 친구이자 문학적 동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贈答詩는 매우 유명해서 ‘吳門二大家’로 불리웠다. 방유의는 언니처럼 서원을 심하게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녀 역시 《宮閨詩評》에서 “서원이 지은 《낙위음》은 육경자보다 더 외설되고 잡스럽다(小淑所著絡緯吟, 視卿子又猥雜).”이라 하였다. 하지만 방유의의 언급이 보여주듯, 육경자와 서원은 늘 비교 대상이 될만큼 지역적으로나 문학적으로도 근접해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서원은 여성 작가에게는 흔치 않은 주제인 여성의 육체가 내뿜는 관능미에 찬찬했고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문학적 교류를 했던 작가이다. 이 점에서 육경자도 마찬가지였다. 남편과 더불어 정치적, 사회적 연계 고리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 듯 했지만 私的인 영역에서의 그녀는 공통점을 찾기 힘들만큼 광범위한 계층의 여성들과 교류하였다. 육경자는 서원과 같은 사대부가의 여성을 비롯하여 歌妓, 창부, 시비, 평민, 여승에 등과 온갖 다양한 주제의 문학적 교류

61) “凡夫寡學而好著述，師心杜撰，不經師匠，卿子學殖優於凡夫遠深。”(錢謙益, 앞의 책, 751쪽)

62) “丙子十五歸我，即志於學，學焉即志於詩……及遭大故而後，不肖病發，由是丙子日事方書藥墨佐我鷄骨，五七年所，而稍有起色。”(《考槃集》序文, 호문해, 앞의 책, 169쪽)

를 실천한다. 그들에게 보낸 시 중에서는 이 여성들의 아름다운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贈馮美人>이라는 작품에서도 육경자는 춤추는 무희의 육체적 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⁶³⁾ 비전통적 주제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문학적 교류 때문에 당시 그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전겸익의 《열조시집》에서도 “(육경자는) 만년이 명성이 높아지자 사람들과 시를 자유롭게 응대하였다. 무릇 규수들과 시를 주고받을 때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았으니 황당무계한 말을 사용하게 되고 아름답지 못한 여자를 묘사하게 되는 잘못을 면키 어려웠다.”⁶⁴⁾고 하였다. 물론 그녀가 여성에게 부과된 전통적 의무나 역할에 반기를 들었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녀는 젊은 과부의 殉節에 감동받아 “남자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고 정숙한 여자는 남편을 따르기로 뜻을 세운다(男兒身許國, 貞婦志從夫)”운운하는 장문의 시를 짓기도 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에게 허락된 공간 내에서 — 주로 여성들간의 관계 속에서— 거침없이 자기표현을 할 수 있었던 육경자는 규방 속에서 무한한 세상을 꿈꾸 자유로운 예술가라 할만하다. 아래에 소개할 문장에서도 그녀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자신과 동시대 여성 시인인 項蘭貞 시집의 서문 형태로 쓴 이 글에서 그녀는 당시 급증하던 여성 시집의 출판과 여성시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여성들의 음성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하여 일단 여성의 것이면 무엇이든 수집하려 하는 당시의 세태에 대해 그녀는 불만을 표시한다. 육경자는 문학성이라는 미학적 기준을 고려할 때 과연 문학사 속에 여성의 자리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을 주고 있다. 즉 성별을 떠나서 철저하게 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만을 대접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소리가 봉쇄되어서도 안 되지만 일부 남성들이 그랬듯이 희소성을 이유로 하여 단편적인 말 한마디라도 무조건 남겨야 한다는 논리에는 극구 반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빼어난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한

63) “……춤추는 허리, 곱고 가늘기가 버들을 무색케하고 그녀의 매력, 달처럼 환히 빛이 나네. 타오르누나, 꽃이라야 그녀의 아름다움에 비길 것, 부드러구나, 손바닥 위에서 춤추듯 가볍구나. (…柳爭綽約纖腰舞, 月共嬋娟秀色明, 灼灼只疑花上艷, 盈盈還比掌中輕……)” (趙世杰, 朱錫綸輯評, 《歷代女子詩集》卷9, 臺北: 廣文書局, 1972)

64) “晚年名重, 應酬率率, 凡與閨秀贈答, 不問妍醜, 必以胡天胡帝爲詞, 不免刻畫無鹽之誚.” (전겸익, 앞의 책, 751쪽)

자부심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는 방유의와 달리 문학적 재능을 보잘 것없는 재주로 취급하는 '婦德 우선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고 여성들에게 더욱 적합한 대상이라는 그녀의 대담한 주장에서는 남성들의 시적 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기화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전통적 삼중지도와 부덕에 입각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회환, 고통을 겪는 혈육에 대한 연민과 동병상련 등 복합적 감정이 폭발하고 뒤엎혀 뒤틀려 있는 고통스러운 방유의 자매와는 달리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지도, 가정적 의무에 짓눌리지도 않은 육경자의 음성은 거침이 없다. 자기표현에 보다 자유스럽고 제한이 없었던 그녀의 詩作의 색깔을 여기서도 엿 볼 수 있다.

(2) 譯註

項蘭貞⁶⁵⁾의 《詠雪齋遺稿》중 陸柳子 序文⁶⁶⁾

우리(여자)들은 술과 장 담그고 음식 만드는 것에 힘썼는데 원래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었기 때문이다. 병이 나거나 재계하느라 할 일이 없으면 옛날의 여성들이 남긴 풍도와 음성을 본받아서 시를 지었다. 시는 본래 대장부들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여자들)의 할 일이다. 아쉽게도 그러한 뜻을 전할 만한 훌륭한 노래가 없으니 정말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노라. 그러나 嘉禾 향부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명문가의 뛰어난 규수로 명문 집안에 출가하였는데 經史의 지식이 집안에 전해졌고 문장을 다듬는 것이 그 기문의 일이었다. 다. 글을 아름답게 쓰는 재주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니 붓에 먹물을 묻혀 (글을 쓸 때면) 깊이 생각지 않아도 바로바로 완성되었다.

매번 글을 다듬을 때마다 붓만 대면 아름다운 문장이 된다. 우아한 한적함과 신선한 아름다움에 온갖 신묘함을 다 갖추고 있으니 보는 이의 눈은 현란해지고

65) 項蘭貞: 절강 嘉興 출신의 여성 시인. 字는 孟婉이며 처녀시절에는 項淑이라고도 했다. 孝廉인 秀水 黃卯錫의 아내이다. 《詠雪齋遺稿》외에 《載雲草》, 《月露吟》이 있다.
66) 원문은 胡文楷, 앞의 책, 176에서 인용함.

마음은 놀라는구나. 남성 문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그대는 성취하였다. (이는 그대에게는) 마치 자루 속에서 진주를 꺼내는 것처럼(쉬운 일이었다). 전생의 운재주와 감성이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세대에는 (여성들의 글이) 점점 쇠락하여 기록된 (여성들의) 작품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그릇되게 인정을 받은 자들은 함부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기록하였다. (이런 행위가) 흥년의 곡식 찌꺼기들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이후에, 부인의 작품에 감동받고 흥을 발한 자들이 어찌 재능 있는 후배들에게 그칠 것이라. 그러므로 옥이 금에 부딪쳐 소리를 내듯이 그대가 우리 시대의 대가가 되리라는 것을 바라서 이룰 수 있음을 알겠다나. 그대가 걸맞지 않게도 나와 지기가 되어 주셨으므로, 이 글로 격려가 되고자 하오니 사양하지 마시기를. (그대의 시집인) 《裁雲草》를 읽어보니 사방의 산들이 모두 옥 노리개가 되어 쟁강거리는 듯 하구나. 산에 사는 사람이 정말로 가난한 것이 아니로다. 몇 마디 말을 써서 《영설재》에 붙이노라.

我輩酒漿烹飪是務，固其職也。病且戒無所事，則效往古女流，遺風騰響⁶⁷⁾而爲詩。詩固大丈夫職業，實我輩分內物也。惜無嫺司以傳其志，方切自慚，而得嘉禾項淑黃夫人⁶⁸⁾者，名閨奇媛，出字高門，經史傳家，雕籠⁶⁹⁾世業，染翰濡毫，不思而構。每一摘藻⁷⁰⁾，落筆成風，雅逸鮮妍，備遵衆妙，觀者目眩心驚。卽子墨客卿⁷¹⁾所不能得，而君得之，若探囊⁷²⁾取珠，非宿世才情，何以有此。我輩垂垂⁷³⁾衰落，記述幾何，而謬爲見

67) 騰은 '늘다', '증가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남다', '남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遺風 騰響이란 (옛 여성들이) 남긴 풍도와 목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68) 嘉禾項淑黃夫人: 육경자가 서문을 쓴 이 시집의 주인공 項蘭貞을 말한다.

69) 雕籠: 용무늬를 새기다. 즉 문장을 수식하거나 조탁하는데 능하다는 의미임.

70) 摘藻:摘는 펼쳐보이다, 늘어놓다는 의미로 摘藻는 수식을 늘어놓는다는 뜻이다.

71) 子墨客卿: 子墨은 漢 揚雄의 작품에 나오는 인명인데 이를 빌어 문장, 文辭를 지칭하는데도 사용된다. 《文選》〈長楊賦〉序에 보면 “聊因筆墨之成文章，故藉翰林以爲主人，子墨爲客卿以風”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李周翰의 注에는 “子란 남성의 통칭이다. 이것들로 主客의 의미를 삼아서 풍자한 것이다(子者，男子之通稱，借以爲主客而諷焉).”라고 해석하였다. 즉 子墨客卿은 남성인 客을 의미하며 넓게는 남성 문인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72) 探囊: 일이 매우 쉽게 이루어짐을 비유한다. 唐 杜牧의 〈郡齋獨酌〉에 “謂言大義小不義，取易卷席如探囊.”이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73) 垂垂: '점점'의 의미이다. 밑으로 늘어진 모양을 형용하는 의미도 있다.

諒者, 妄錄其愚矣. 庶幾⁷⁴比之饑年糠粃乎? 他時感夫人而興起者, 何限後生可畏. 故知玉振金聲⁷⁵, 君其作明時⁷⁶大家, 可望而至. 因君謬爲見知⁷⁷, 以此相勗, 當必無讓. 讀裁雲草一過, 四山盡作玉珮琳瑯, 山中人誠不貧矣. 聊題數語, 歸之詠雪齋. (胡文楷, 《歷代婦女著作考》, 176쪽)

4. 當代와 소통하기 — 沈宜修

(1) 解題

심익수(1590-1635)와 그녀의 세 딸인 葉紉純, 葉小純, 葉小蘭은 명대 문학사에 서 보기 드문 문학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심익수는 吳江 출신으로 자는 宛君이고 副都御使인 沈琬의 딸이다. 그녀의 집안은 오강의 명문가로 그녀는 유명한 희곡가인 沈璟의 조카이기도 하다. 심익수는 1605년에 역시 그 지방의 명문가 출신인 關氏 葉紹袁(1589-1649)와 혼인하여 무려 8남5녀의 자녀를 낳는다.⁷⁸ 심익수는 재능 있는 환환, 소환, 소란 이 세 딸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으며 남자 형제들과 함께 교육을 시킨다. 그러나 천재 시인으로 유명하던 막내딸 소란이 혼인을 앞두고 17세의 나이로 병사하고 다음 해 장녀 환환도 죽는다.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한 심익수는 3년 뒤 47세로 사망한다.

섭소원과 심익수는 당시 강남 사회에서 이상적인 재자가인이자 다정한 부부의 표본처럼 알려져 있다.⁷⁹ 하지만 심익수의 시를 살펴보면 그녀의 초기 시들은 남

74) 庶幾: '바라건대'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가깝다' '거의 되려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75) 玉振金聲: 문장의 도가 성함을 비유한다. 唐 楊炯의 <從弟去溢墓誌銘>에 "莫不玉振金聲, 筆有餘力"이라는 구절이 있다.

76) 明時: 정치가 淸명한 시절을 지칭한다. 현 왕조를 칭송할 때 주로 많이 쓰였다.

77) 見知: 여기서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이를 만난다, 혹은 그러한 대접을 받다라는 의미이다.

78) 섭소원의 일생과 그의 여성문학론, 그가 쓴 <午夢堂集>序文이 <明清時期 女性文學 資料 譯註와 解題(1)>(《중국학논총》19집)에 실려 있다.

79) 전경익은 "섭소원은 어려서 잘생긴 용모로 널리 알려져 위개와 반악과 같은 종류로 비교되곤

편과의 오랜 이별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으로 충만해 있다. 열여섯에 섭소원에게 시집은 그녀는 학업으로 인해 늘 외지에 나가 있었던 남편과의 이별, 엄한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⁸⁰⁾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녀는 상당한 규모의 詩를 남겼고 심씨 일가와 연계된 여성 시인 그룹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다. 또한 吳江 지역을 비롯해 가흥, 소주, 남경 등의 친구, 친지 관계의 여성 작가들과도 활발히 교류하여 일종의 느슨한 문학적 사단을 형성하기도 하였다.⁸¹⁾ 그녀는 딸들이 죽은 후 3년의 생존기간 동안 모든 열정을 당대 여성 시인들의 작품을 수집, 정리하는데 쏟는다. 이러한 수집 작업의 결과가 바로 《伊人思》이다. 여기에는 그녀가 수집한 여성시인 46인의 241首가 수록되었고 심의수가 간단한 비평을 달았다. 이 시집의 출판은 그녀의 사후 남편 섭소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시집의 내용을 분석한 Dorothy Ko에 의하면 241수 중에서 83수가 여성 친구나 자매, 딸 등 여성을 위해 쓴 것이고 남성들을 위해 쓴 시는 7수에 불과하다고 한다.⁸²⁾ 커다란 고통 속에서 심의수가 찾은 구원은 바로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동시대 여성들과의 정서적 교류와 위로였던 것이다. 《이인사》의 짧은 自序에서는 바로 이러한 당대 여성들의 음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그녀의 사명감이 묻어나오고 있다. 이는 일부 남성들의 女性詩 신성화 전략을⁸³⁾ 비판하는 의도로 쓰였다고도 볼 수

하였다. 완군은 열여섯에 그에게 시집왔는데 金枝玉葉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결합이어서 소주 사람들이 대단히 이들을 칭송하였다(仲韶少而韶令, 有衛洗馬, 潘散騎之目. 宛君十六來歸, 瑤枝玉樹, 交相映帶, 吳中人豔稱之.)⁸⁰⁾라 하여 이들의 결합을 당시 남녀 관계의 이상으로 그리고 있다.

80) 섭소원은 1625년에 진사가 되는데 과거에 합격하기 까지 양부의 집에서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다. 과부가 되어 일가 친척들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외아들 섭소원에게 온 희망을 걸었던 시어머니 馮氏는 며느리의 글이 아들의 마음을 분산시킬까 걱정하여 며느리의 글쓰기를 금지시키고 늘 옆에 대기할 것을 명령했다 한다. 이들의 신혼 생활의 구체적 양상은 남편인 섭소원에 의해 묘사되어 있다. (十六歲歸於余, ……喜作詩, 溯古型今, 幾欲追步道蘊, 令嬾矣. 時先大夫早謝世, 宦業如霜明, 身後幾不能謀生. 強宗早族, 又以余弱子, 日尋諸穿孀, 以故太宜人望余, ……恐以婦詩分啖嗔心, 君因是稍拂太宜人意.) <亡室沈安人傳>, 《午夢堂集》, 北京: 中華書局, 1998)

81) Dorothy Ko, 앞의 책 213쪽에는 심의수가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문학적 네트워크에 포함된 여성 작가들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다.

82) Dorothy Ko, 앞의 책, 215쪽.

83) 여성시의 근원을 강조하는 이른바 여성 문학에 대한 신성화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가 田藝蘅(1567-1620)의 《詩女史》서문이라고 볼 수 있다. <明清時期 女性文學 資料 講註와 解題(1)> (《중국학논총》19집) 참고.

있다. 심의수는 여성들의 글쓰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여성들이 결코 정사의 정형화된 열녀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경전을 들먹이며 여성시의 근원을 치켜세우는 전략은 자신들이 사는 세상 저 너머에 존재하는, 침범하지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 속에 여성의 글을 기두고 신비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심의수는 이 점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2) 譯註

심의수의 《伊人思》⁸⁴⁾ 自序

세상에는 유명한 여성들의 시문을 선집한 것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 옛 것을 모방한 것이고 요즘 것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지는 못하였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관중과 안영의 전기에 이르기를 그들의 글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논의하지 않겠고 그보다는 (무시되어 온) 軼事를 논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사마천의 뜻을 흉내 내어, 이미 다른 책에 실린 작품들은 다시 신지 않았다. 남편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기록하여 이에 (이것들을)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칭하였다. 하지만 혹 이미 간행된 것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세월에 묻히고, 산천이 (이들의 전파를) 가로막고 있으니, 가히 탄식할만하다.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주옥 같은 작품들과 아울러 다른 책에 산재되어 있는 것까지, 모두 묶으려 하니, 내가 감히 없애버리지 못한 것들이다. 보다 폭넓게 수집한 이후에야만 훌륭하게 완비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로다.

世選名媛詩文多矣, 大都習於沿古, 未廣羅今. 太史公傳管晏云: 其書世多有之, 是以不論. 論其軼事.⁸⁵⁾ 余竊做斯意, 既登琬琰⁸⁶⁾者, 弗更採瓶. 中郎⁸⁷⁾帳秘, 乃稱美譚. 然

84) '伊人'이란 원래 《詩經》秦風 <蒹葭>중 "所謂伊人, 在水一方"이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高亨은 註에서 "伊人이란 그 사람, 마음 속에서 지목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伊人, 是人, 意中所指的人)."라 풀이하였다. 주로 연인, 친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85) 太史公이란 《史記》의 저자 司馬遷(기원전 145-86)을 말한다. 笱이란 춘추시대 齊나라 재상인

或有已行世矣, 而日月湮焉, 山川阻之, 又可歎也. 若夫片玉流聞⁸⁸⁾, 并及他書散見, 俱爲彙集, 無敢棄云. 容俟博蒐, 庶期燦備⁸⁹⁾爾. (葉紹袁 原編 冀勤 輯校《午夢堂集》, 538쪽, 中華書局, 1998)

5. 길 위의 기녀 - 王微

(1) 解題

明末의 기녀가 쓴 아래 두 편의 짧은 글은 얼핏 보아도 방유의 자매와 같은 사대부 여성 작가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사대부 여성 작가들이 가정적 의무와 婦德의 요구와 같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자신의 문학적 열망과 재능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대한 갈등과 회의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이 기녀는 자신과 문학의 존재에 대해 보다 근원적

管仲(?-기원전645)을 말하고 甯이란 역시 제나라의 정치가인 甯嬰(?-기원전 500)을 말한다. 인용된 구절은 《사기》권62의 <管晏列傳>에 나오는 말로 사마천은 “나는 관중의 목민, 산고, 승마, 경중, 구부 및 안자춘추를 보았다. 그들의 말은 정말로 상세하다. 그들의 책을 보았으니 그들의 행동도 보고 싶어 傳을 만들어 보았다. 그들의 책으로 말하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으니 (여기서는) 논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만을 한 것이다(吾讀管氏牧民, 山高, 乘馬, 輕重, 九府, 及晏子春秋, 詳哉其言之也, 既見其著書, 欲觀其行事, 故次其傳. 至其書, 世多有之, 是以不論, 論其軼事).”라 하였다.

- 86) 琬琰은 원래 《書經》의 <顧命>중 “弘璧, 琬琰在西序.”에서 나온 말로 옥으로 된 홀을 의미하며 비석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어 품격이나 글의 아름다움을 비유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즉 이 문장의 의미는 “이미 아름다움을 보여준 글”, 즉 기존의 시 선집에 실렸던 여성시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 87) 中郎은 궁중의 수비를 담당하는 관직명을 말한다. 심의수의 남편 섭소원은 國子監 助教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벼슬을 거쳐 1631년에는 북경 朝陽門을 지키는 城守를 지낸 바 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섭소원은 관직을 사퇴했을 때이기는 하지만 옛 관직명으로 남편을 지칭한 듯 보인다.
- 88) 片玉은 빼어난 사람이나 사물 중 하나임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流聞은 이리저리 전해지다, 퍼지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여성시들 중 일부’를 의미한다.
- 89) 庶期는 바라다, 기대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燦備에서 燦은 빛나다는 의미보다는 ‘분명하다, 선명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듯 하다. 즉 庶期燦備란 “(지금처럼 단편적이거나 산만하지 않고) 작품이 완비될 것을 기대하다.”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

이고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글의 주인공인 王微(약 1600-1647)는 字는 修微이고 廣陵(揚州) 출신의 기녀 시인이다. 그녀의 고향인 양주는 이른바 瘦馬라 불리우는 어린 소녀들이 매매되는 곳으로 유명했다.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전겸익의 《열조시집》의 기록에 의하면 그녀의 삶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녀는 여섯 살에 부친을 잃고 유곽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한다. 그 곳에서 성장하면서 탁월한 재주를 인정받았다. 그녀는 늘 배에 책을 싣고는 소주와 紹興 지방을 여행하였고 풍류 명사들과만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아’ 禪宗에 귀의하여 배옷과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양자강 유역을 두루 여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大別山, 황학루, 앵무주 등의 명승지는 물론이고 장강 유역, 廬山, 백거이의 초당까지 방문한다. 武林에 돌아와서 연못을 파고 草衣道人이라는 호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소주에서 어느 불한당에게 겁탈을 당한 후 許響卿(潁川君)의 첩이 되었다. 명 멸망의 혼란한 시기에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죽음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고 한다. 명이 멸망한 뒤 삼년 후 왕미는 죽었고 영친군은 그녀를 가리켜 “진흙에서 스스로 뽑힌 푸른 연꽃과 같고, 곤륜산에서 나온 흰 옥돌과 같다.”고 표현하였다고 한다.⁹⁰⁾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 이전에 茅元儀와 결혼했다가 나중에 다시 허예경과 혼인한 것이라는 기록도 있다.⁹¹⁾ 또한 왕미는 陳繼儒, 譚友夏, 鍾惺 등 당대 최고의 문인들과 교류하였고 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⁹²⁾

《열조시집》이나 다른 기록에서의 왕미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직업적 필요와 관계없이 정처없이 돌아다니는 자유로운 기녀로서의 왕미와 從良한 이후 한 남성에게 충성을 다 하는 가정부인으로서의 왕미이다. 우선 왕미는 대단

90) 전겸익의 《열조시집》의 <閨集>에 그녀를 포함시키면서 기녀들의 카테고리에 넣지 않고 별도로 규방 여성 작가들의 카테고리 속에 편입시킨다. 왕미에 관련된 다른 자료들도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다른 남성들과의 교류에 관한 기록만 단편적으로 차이가 난다.

91) 모원의와의 혼인은《宮閨氏籍藝文考略》에 기록되어 있다. 《玉鏡陽秋》에 의하면 譚友夏와 鍾惺과도 함께 교류하였다고 한다. (호문해, 앞의 책, 88쪽 참고)

92) 이들은 모두 왕미의 시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였다. 진계유는 <題修微草>에서 “수미의 시는 설도와 비슷하고 그녀의 시는 이청조와 비슷하다. 그러나 그녀는 분 바르고 눈썹 그린 여자들과는 조금도 닮은 곳이 없고 수염달린 남자들도 (그녀의 글을 읽으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修微詩類薛濤, 詞類李易安, 無類粉黛兒, 卽鬚眉男子, 皆當愧煞)”라 하였다.

한 여행가로 알려져 있다. 물론 당시 사대부가의 여성들도 임지로 부임하는 남편을 따라 여행을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왕미의 경우는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여행을 하였다. 그녀의 시집 제목인 《遠游篇》, 《宛在篇》, 《期山草》 등이 모두 여행과 관련된 것이고 《名山記》라는 제목의 여행견문록도 출판하였다. 아래에 소개될 《완재편》자서에서도 당시 다른 여성들이 누리기 힘든 육체적 자유의 의미가 묻어나온다. 하지만 《열조시집》을 비롯한 그녀에 관련된 기록에 의하면 ‘강간’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마치 허예경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서술을 통해 性的 약자로서의 여성의 본질을 상기시키고 있다. 왕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젠더적 특징 외에도 기녀라는 신분의 계층적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조적인 두 가지의 삶도 바로 명대 기녀의 독특한 양면적 특징에서 기인한다.

명대의 기녀, 특히 명 중엽에서 말엽까지 상업이 발달한 강남 지구의 기녀 문화는 공전에 없는 번영을 구가한다. 이러한 기녀 문화의 이면에는 중국 기녀 사회의 모순과 긴장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의 존재에는 극단적인 양면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불우하고 빈곤한 가정 출신임에도 엘리트 남성들과 지적 교류가 가능할 정도로 당시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상층의 기녀인 경우), 본질적으로 性을 파는 존재였음에도 당당한 예술가로 대접받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누린 명성과 자유는 이들이 가부장적 가족 구조 밖에 위치했기 때문이었지만 이들은 궁극적으로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기로 소망하였다. 때문에 여행의 자유를 누리고 남성들의 세계에 깊이 발을 들여 놓았던 왕미 역시 여성들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진 삶의 조건-물리적인 구속-을 깊이 실감하고 있었고 이러한 왕미의 내면적 갈등은 아래에 소개될 《櫺館詩》自序에 표현되어 있다. 그녀는 이러한 물리적 제약 안에서 주관적 상상력을 통한 글쓰기와 종교적 헌신을 통해 나름대로의 의미를 창조하려고 했던 것이다. 체념처럼 보이는 시와 종교에의 귀의는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문장 모두 매우 짧고 간단하지만, 명대 말기 名妓의 문화관과 정신세계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 譯註

《宛在篇》⁹³⁾ 自序

내가 근래 쉬어야 할 때면 반드시 산과 물로 간다. 시집의 제목을 완재라 한 것은 대략 이 뜻을 취한 것이지 감히 나를 (시경에서의) ‘그 사람’으로 스스로 지목하는 것은 아니다. 아아, 내가 느끼는 생사존망의 변화는 얼마나 다양한지. 하늘이 내려주신 칠척의 몸에 간혀서 붓을 던져버리고 벼루를 불태워버리지도 못하고 화려한 말의 업보를 없애버리겠다고 맹세하지도 못하면서도 여전히 때미의 울음 소리나 지렁이 구멍에 대고 자랑스럽게 붓을 놀리고 있지 않은가? (蒹葭에서 묘사된 것처럼) 가을 물은 불어나고 이슬은 이미 가득하구나. 만약 또 다시 사랑이 찾아온다면 누가 이것을 (글로) 남길 수 있을까? 나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진실로 내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르고 있도다.

予近憩必在山水之間, 詩名宛在, 率取此意, 非敢以伊人自目也⁹⁴⁾. 嗟乎! 我所感存亡生死之變多矣! 造化⁹⁵⁾七尺相拘, 而不能捐筆焚研, 懺除綺語⁹⁶⁾之業, 猶沾沾⁹⁷⁾向蟬鳴蚓窟中作生活⁹⁸⁾耶? 秋水浩淼, 風露已盈⁹⁹⁾, 苟復有情, 誰能遺此? 予多言, 予

93) 시집 제목인 ‘宛在’는 《시경》秦風에 나오는 <蒹葭>에서 유래하였다. “갈대는 푸르고 푸른 데 흰 이슬은 서리가 되었네, 바로 그 사람은 물 건너에 있구나. 물길 거슬러 올라가니 길은 험하고 멀고, 물길 따라 내려오니 마치 물 가운데 있는 듯 하구나(蒹葭蒼蒼, 白露爲霜, 所謂伊人, 在水一方. 溯洄從之, 道阻且長, 溯游從之, 宛在水中央).” 여기서 ‘완재’는 “(그 곳에) 있는 듯 하다.”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94) ‘伊人’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석 84번을 참고할 것.
 95) 造化는 여기서 조물주 혹은 천지가 사물을 만들어내고 기른다는 의미로 쓰였다.
 96) 綺語는 불교용어이다. 愛欲등과 관련된 화려하고 음란한 말 혹은 일체의 잡스러운 언어를 말한다. 十善戒 중 四口業의 하나이다.
 97) 沾沾은 ‘스스로 득의하는 모양’을 형용하기도 하고 짐작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봐야 할 듯 하다.
 98) 여기서는 보통 사용하는 ‘生活’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통상 사용하는 의미와 다른 용례로는 ‘美事’, ‘아름다운 시간’ 혹은 ‘붓’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앞뒤 문맥으로 보아 ‘붓’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듯 하다. 참고로 *Woman Writers of traditional China: An*

誠不自知其多言

《榭館詩》自序

남자로 태어나 천하를 호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 한 칸을 섬기는구나. 참배하고 (경을) 읊는 여가에 읊은 말 한마디 노래 한마디는 비속의 꽃에 대한 기억에 관한 것도 있고 혹은 물과 산에 대한 갈망에 관한 것도 있었다. 한숨 쉬다 흥이 나고 뜻을 기탁하다 멈추었다. 내가 감히 세상일에 대해 이야기하노니. (시에서) 봄이라는 것은 풀을 통해 알 수 있고, 가을이라는 것은 낙엽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대충 구색 맞추어 생겨난 것이라도 시가 아닌 것이 없다. 시가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는가?

生非丈夫, 不能掃除天下, 猶事一室. 參誦之餘, 一言一詠, 或散懷¹⁰⁰花雨, 或箋志¹⁰¹水山, 喟然而興, 寄意而止. 妄謂世間, 春之在艸, 秋之在葉, 點綴¹⁰²生成, 無非詩也. 詩如是, 可言乎? 不可言乎? (胡文楷, 《歷代婦女著作考》, 88쪽)

Anthology of poetry and Criticism (Kang-i Sun Chang and Haun Saussy, ed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9)에서는 이 부분을 'these writings'로 해석하고 있다.

99) 秋水浩淼, 風露已盈: 이 구절도 <蒹葭>시와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이 시는 가을 풍광을 배경으로 연인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그리고 있는데 추수란 '所謂伊人, 在水一方'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 유래하여 경치를 보고 사람을 그리워 한다는 뜻의 '秋水伊人'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風露란 '蒹葭蒼蒼, 白露爲霜'에서 나온 말이다. 즉 여기서의 秋水와 風露 모두 사람을 생각게 하는 가을 경치를 의미한다.

100) 散懷는 "마음을 토로하다(抒發情懷)"라는 뜻이다.

101) 箋志에서 箋은 시나 편지를 쓰는데 사용되는 종이를 의미하므로 시를 비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 箋志란 "시 속에 뜻을 기탁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102) 點綴란 원래 장식하다, 돋보이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應景, 湊數, 즉 "대충 구색만 맞추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야 할 듯 하다.

6. 결론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명대 여성들이 직접 쓴 비평론이나 문학론은 대단히 드물다. 여성들의 시선집이나 문집이 공전에 없이 번영을 구가하기 시작한 16세기 후반 이후로도 여성 글쓰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여성의 재능을 찬양하는 목소리는 늘 남성에게서 나왔다. 어찌 보면 이 시기의 여성들은 이들 남성들의 등 뒤에 숨어서 세상과 소통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소개한 이 짧은 문장들은 본격적인 문학론이라기 보다는 여성 작가와 여성들의 글쓰기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지, 규방에 갇힌 여성들에게 글이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이 요구하는 여성성을 내면화하면서도 자신의 진정성을 잃지 않는 길은 과연 무엇인지 등에 관한 고민을 여성들 스스로가 상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소수의 여성들은 자신의 문학관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節'이라는 명칭을 달지 않을 수 없었던 방유의 자매의 고통스러운 삶의 묘사나 평생을 세속적 명예로부터의 은거와 사람들과의 교류를 반복하며 자유롭게 살아온 육경자의 당당한 음성, 과거가 아닌 동시대 여성들의 글을 구하는 심의수나 글쓰기와 자기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이 묻어 있는 기녀 왕미의 글 모두가 여성 작가라는 소수자의 동일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일 젠더라는 잣대로는 재단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이 시기 여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만큼 복잡하고 多岐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여성성의 기준도 고전적인 의미의 婦德에서 才의 영역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때문에 여성들은 사회에서의 요구와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의 균형과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이 남성들의 추천사에 힘입어 세상에 선을 보이는 이러한 상황은 청대 초기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바뀐다. 청대 이후로 여성들의 글쓰기 자체가 점점 보

평화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나 동료들의 글에 대한 평가와 의미를 자신들 스스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진다. 차후에 청대 이후의 여성 문학론에 대한 소개와 연구 작업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參考文獻>

- 錢謙益, 《列朝詩集小傳》, 上海古籍出版社, 1983.
葉紹袁 編 《牛夢堂集》, 北京: 中華書局, 1998.
朱彝尊 著, 姚祖恩 編, 《靜志居詩話》,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梁乙真, 《中國婦女文學史綱》, 開明書店, 1930年版.
胡文楷, 《歷代婦女著作考》, 上海古籍出版社, 1985.
Kang-i Sun Chang and Haun Saussy, eds, *Woman Writers of traditional China: An Anthology of poetry and Criticism*,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9.
Dorothy Ko, *Teachers of the Inner Chambers—Women and Culture in Seventeenth-Century China*, Stanford Univ. Press, 1994.

<中文提要>

這篇論文主要對明代關於女性文學的文章進行翻譯和注解, 並且對這些文章進行解釋。這裏介紹方維儀·方孟式姐妹, 陸柳子, 沈宜修, 王微等五個人的文章。他們都是明末時期的著名詩人, 作家, 編輯。方維儀·方孟式姐妹被稱為三節, 指的是她們的守節和殉節行爲。她們互相贊美對方的高尚的品德和卓越的書寫能力。但她們的一生充滿痛苦和孤獨。所以通過這些文章她們慰勞自己的姐妹和自己。相反, 陸柳子的文章充滿自由和驕傲。她把旅行和交流放在自己人生的重點。沈宜修關注當代女性作品的收集和保存。她願意通過這樣的過程跟當代女作家進行溝通, 對話。最後一位王微是明末的名妓, 同時很有名氣的旅行家。不象士大夫女作家的話語, 她更關注像大自然和人的溝通, 書寫的本質, 在現實社會裏女性的位置等等。

關鍵詞: 明代, 女性文學, 女性作家, 方維儀, 方孟式, 陸柳子, 沈宜修, 王微